

보도	2024.1.24.(수) 15:00	배포	2024.1.24.(수)
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회계감독총괄팀 감사제도운영팀	책임자	국 장	이 석	(02-3145-7750)
		담당자	팀 장	이재훈	(02-3145-7752)
		담당자	팀 장	손기숙	(02-3145-7977)
	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	책임자	센터장	서아론	(02-3774-9290)
		담당자	파트장	임홍선	(02-3774-9467)

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- 회계 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-

- 주요 내용 -

◆ (개요) 금융감독원 · 한국거래소는 '24.1.24(수). 감사인 지정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'를 개최하였습니다.

✓ 이번 간담회는 '23.6월 「회계제도 보완방안」에 따라 기업부담을 완화한 데 이어,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추가 발굴·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.

◆ (논의내용) 그간 지정제도 합리화 추진성과와 의견조정협의회 등 최근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하고, 16개 상장사*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. * 자산규모, 지정사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

✓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그간 지정사유 합리화를 추진하여 '24년도 지정대상 기업이 184사 감소하였으며, 앞으로도 오늘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✓ 한국거래소 홍순욱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의 '의견조정협의회' 등을 소개하면서,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발생시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.

◆ (향후계획)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속 개선하겠습니다.

I 간담회 개요

-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'24.1.24.(수) 지정감사를 받고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·재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음
- 이번 간담회는 작년 6월 발표한 「회계제도 보완방안」에 따라 직권 지정 사유를 정비*하고, 감사 시간·보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협의를 내실화**하는 등 기업의 권리를 강화한 데 이어,
 - 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여 제도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·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
- * '23.12.13. 보도자료 "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" 참고
- ** '23.12.29. 보도자료 "기업과 감사인 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,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" 참고
- 아울러, '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'의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·홍보도 병행

찾아가는 간담회 개요

- ☑ 일시/장소 : '24.1.24.(수) 오후 3시~5시, 한국거래소 대회의실
- ☑ 진행순서 : 모두발언(10분) → 애로사항 청취 및 코멘트(90분) → 마무리발언(3분)
- ☑ 주요 참석자
 - (금감원) 윤정숙 전문심의위원, 회계감독국장, 회계감독총괄팀장, 감사제도운영팀장
 - (거래소)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, 코스닥시장본부장보, 회계지원센터장
 - (기업) 유가증권·코스닥 상장 16개사 회계·재무담당 임원

대형 (4사)	주기적 지정	Big4	3사	중형 (7사)	주기적 지정	Big4	2사
	직권 지정	Big4	1사		non-Big4	2사	2사
중견 (2사)	주기적 지정	Big4	2사	소형 (3사)	직권 지정	non-Big4	2사
					지정 → 자유	non-Big4	1사
					주기적 지정	Big4	2사
					non-Big4	1사	1사

※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자산규모, 지정사유 등을 고려하여 참석기업을 선정

Ⅱ 주요 논의 내용

1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회 발언 요지

-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 지정 등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었지만 감사 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,
 - 특히, 감사 시간·보수는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‘비대칭성’이 존재하므로,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- 이에 따라 「회계제도 보완 방안」을 마련하여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들을 지속 추진해 왔음을 설명
 -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 사유를 합리화하여 '24년도 지정 대상 기업이 전년 대비 184사(직권 지정 95사, 주기적 지정 89사) 감소
 -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 유예, 기업과 감사인 사이의 감사 시간 합의 과정 내실화,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강화 등도 병행 추진

'23년 감사부담 완화 주요 내용

- ☑ **(직권 지정)** ①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선임 기간 보장, ② 재무기준 수치산정 재무제표 변경 (연결→별도), ③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폐지
☞ ①,② '24년도 재무기준 신규 직권지정 **89사 감소**
③ 투자주의환기종목 **6사 지정 해제**
- ☑ **(주기적 지정)**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(자산 1천억원 → 5천억원)
☞ '24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 비상장사 **89사 감소**
- ☑ **(기타)**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 연결 내부회계 감사 유예, 기업과 감사인 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,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강화 등

□ 앞으로도 회계 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·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

- 기업부담 완화가 정보이용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에 힘 써줄 것을 요청
- 아울러,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의 애로사항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며 금감원 온라인 소통채널*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

*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eacrs.fss.or.kr) 內 열린창구

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발언 요지

□ 홍순욱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‘의견조정 협의회’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면서,

의견조정협의회

- ☑ **(개요)**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
- ☑ **(구성)** 위원장, 코스닥협회 등 추천 3명, 학계·회계사 등 2명, 거래소 1명 등
- ☑ **(역할)** 지정감사인 부당행위* 등과 관련한 분쟁사건 조정

*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, 불필요한 자료 요구, 과도한 외부기관 평가 보고서 요구 등

- 상장기업이 손쉽게 고충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면서, 금융당국과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

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발생시 분쟁조정 절차



※ 「감사인 부당행위 관련 신고가능 사례 및 처리절차(예시)」는 붙임 파일 참조

3 지정기업 애로 · 건의사항

-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,
 - 감사보수 인상 및 감사품질 저하우려 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언급하며,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견 제시

참석 기업 애로 · 건의사항 주요 내용

- ☑ 지정감사 계약체결시 기업의 협상력이 낮아 **감사보수가 크게 인상**
- ☑ 잦은 감사인 교체에 따른 회사·산업에 대한 **이해 부족**으로 **감사품질 저하우려**
- ☑ 지정감사인 복수지정 등 **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** 필요
- ☑ 지정감사 종료 후에도 **지정감사인 자유선임 허용** 필요
- ☑ 직권지정사유 중 **재무적요건 적용기준 완화** 필요

III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소임을 다해나갈 예정
 -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**감사 부담을 완화**하는 방안*을 적극 추진하고,

* (예시)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 개선추진, 기업의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검토
11개 산업에 도입 예정인 산업전문가 포함 업종 확대 검토

- **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**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

-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분쟁조정 기구의 **분쟁조정 결과에 불응**하거나, **권한 남용**이 드러난 경우 **지정 취소** 등 엄정 조치*

* (예시) 거래소 분쟁조정기구에서 처리된 감사인의 부당행위, 조치결과 등 공개방안 검토

※ (별첨)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모두발언 1부
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모두발언 1부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

감사인 부당행위 관련 신고가능 사례 및 처리절차(예시)

※ 본 사례는 보도 편의를 위한 가공의 사례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례 1

지나친 감사보수 요구 → 조정안 불성립 → 금감원 지정취소

- ① A사(코스피 상장)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 협상
- ② 지정감사인 甲회계법인은 보수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전년 대비 70% 가량 인상된 감사보수를 제시
- ③ 거래소 분쟁조정기구에서 사실관계 조사결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확인하고, A사·甲회계법인에 1차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불성립
- ④ 거래소는 의견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2차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甲회계법인이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불성립
- ⑤ 거래소는 이를 금감원에 이첩하고, 금감원은 사실관계 조사 후 지정취소 결정 및 乙회계법인으로 감사인 재지정

사례 2

지나친 자료 및 외부평가 요구 → 1차 조정 성립

- ① B사(코스닥 상장)는 관리종목 편입으로 감사인이 직권지정되어, 丙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
- ② 丙회계법인은 10개년치 자료를 요구하거나, 가치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과도하게 외부기관의 평가를 요구
- ③ 거래소 분쟁조정기구에서 사실관계 조사결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확인하고, B사·丙회계법인에 1차 조정안 제시
- ④ B사·丙회계법인 상호 합의 하에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